

방수시트 · 바이오 국제상품 가능성

제33회 제네바전시회 14점 출품 전원 수상 ... 바이오 관련제품 인기

국내 발명가들이 4월 6-10일 스위스 제네바 PALEXPO에서 개최된 제33회 제네바 국제발명·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에서 출품자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.

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,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14명(사)이 14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8점, 은상 3점, 동상 3점, 특별상 3점 등 17개의 상을 수상했다.

금상은 살루스바이오텍의 <숙취방지 및 제거용 조성물>, 명진케미칼의 <미가류 상태인 점착성 방수시트의 제조방법 및 시공방법>, 세기종합환경의 <생물막 대기정화 기능 수족관>, 네오바이오의 <기능성 쌀 및 제조방법> 등이 수상했다.

발명과 신제품의 양도 또는 양수를 촉진해 발명가들의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33회 제네바 국제발명·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에는 말레이, 러시아, 프랑스, 이란, 루마니아, 타이완, 한국 등 42개국에서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.

우리나라는 1982년 제10회 전시회부터 참가한 이래 제33회 전시회까지 모두 404점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102점, 은상 161점, 동상 89점 등 모두 352점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발명가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4/14>